

의철학 플랫폼 프로젝트인 최종덕 『의학의 철학』

김 성 우*

의철학 플랫폼이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산업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플랫폼 레볼루션』은 플랫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플랫폼은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게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이다. 플랫폼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개방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용자들끼리 꼭 맞는 상대를 만나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사회적 통화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해 주어 모든 참여자가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데 있다.”(엘스타인 등, 2020)

독립철학자를 꿈꾸며 자신을 자연철학자라고 부르는 최종덕 교수는 『의학의 철학』에서 철학계에서는 최초로 의철학 플랫폼이라는 야심찬 기획을 제시한다. 그 책 「서문」에 따르면 「의학의 렌즈와 거울 그리고 창으로 비춰본 철학적 시선」이 플랫폼이라고 규정된다. 의학을 향한 철학적 시선인 의철학은 인문학적인 것과 자연철학적인 것의 중층성을 지니며 주제와 상관없이 의학 관련 문제에 대해 철학의 여러

*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swkim1111@sangji.ac.kr

분야와 의학의 여러 분야가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하고 주체적인 생명”을 고유화하는 삶의 지혜도 개발하는 개방적인 인프라이다. 물론 의학의 여러 분야는 현대과학 성과를 충분히 반영한 의과학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의철학 플랫폼을 통해 삶과 과학, 인문학과 자연철학, 과학주의 기반의 의과학과 인본주의 기반의 의철학 사이에 융합과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의철학 플랫폼 프로젝트는 “분과 의학의 과학적 분석과 생로병사의 실존적 해석”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태도가 학문적으로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개방적 인프라를 꿈꾼다. 그러한 상호작용을 촉발하는 계기가 바로 철학적 문제 제기이다. 특정된 문제에 정답을 찾으려는 데 집중하는 과학과 달리 철학은 문제를 일으키려고 노력한다. 의철학 플랫폼은 여기에 관여하는 참여자가 스스로 생산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과정과 더불어 ‘진짜 문제 아닌 것’을 식별해내 이를 ‘가짜 문제’로 규정하여 해소하는 과정도 내포한다.

의철학 플랫폼 프로젝트답게 『의학의 철학』은 예리하게 여덟 개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따라 방대하게 열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수가 제기한 여덟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의철학의 고유성은 무엇이고 의과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2. 임상의학의 진단추론처럼 의과학의 여러 추론 유형들은 의철학적으로 타당하고 유효한가?
3. 경험과 합리, 실재와 현상 같은 철학사의 추상적인 개념들이 의학의 실천 영역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4. 건강과 질병은 무엇인가? 의학적 질문에 사회적 질문을 결합한 의료인문학을 바탕으로 보면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이 건강과 질병에 적합한 비유라고 볼 수 있는가?
5. 진화의학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떤 질병 유형이 자연의 진화속도와 인위적 문화변동의 속도 차이에서 발생하는가?
6.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질병유기체 입장에서 인간 숙주와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7. 번역학의 논리를 아군과 적군 사이의 전투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볼 수는 없는가? 그리고 생성변화하는 몸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과학기술을 통한 노화방지의 ‘청춘의 샘’이 가능한가?
8. 과학주의 의학과 인본주의 의학이 설명 장르와 이해의 장르 사이에서, 분석의 시선과 해석의 시선 사이에서 어떤 만남이 가능한가? 의철학 플랫폼은 이런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여덟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의철학의 고유성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문학의 과제를 제시하고, 임상추론에서 발견술의 추론까지 다양한 의학적 추론의 특징을 분류한다. 또한 의학적 지식공학을 바탕으로 의료인 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시도한다. 더불어 분류 의학의 존재론적 기초를 탐구하고, 의학 실재론 논쟁을 거쳐 질병을 분류하고, 그 분류의 논리 추론까지 탐구한다.

둘째로, 질병 개념의 역사를 다루고, 과학주의 생의학 모델과 문화주의 모델 등 다양한 질병 이해 모델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러한 모델들의 통합도 추구한다. 또한 질병에 관한 사회적 질문까지 포함하는 의료인류학을 정리하는 한편, 건강과 질병에 관한 건강생성 모델과 공중보건 모델을 제시한다.

셋째로 자연철학의 전통을 이으려는 저자답게 자연철학적 시선으로 진화론에 바탕을 둔 진화 의학을 제시한다. 더불어 노화에 대한 진화론적 해석을 통해 노화 의학에 관한 철학적인 성찰을 한다. 또한 진화 의학적 시선으로 질병 모델과 감염성 질병의 진화 의학을 고찰하며, 진화 의학과 임상 의학의 충돌과 접점까지 고찰한다. 그리고 의과학과 의철학을 구체적으로 접목하는 사례로 공존의 존재론을 제시한다. 공존의 존재론이 번역학의 철학을 가지고 기생체 생존 전략을 해석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의철학 플랫폼 프로젝트의 개방과 융합의 방법론을 정립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과학적 ‘분석’과 인문학적 ‘해석’의 접점을 추구한다.

과학주의적 의과학과 인문학적 의철학의 융합

분석은 한 현상의 과학적 인과성을 밝혀내어 이를 설명하려는 학문적인 방법이다. 과학혁명과 더불어 ‘서술’ 대신에 ‘분석’이 등장한다. 다시 말해, 내용적인 면에서 종합적인 (고대의) 자연철학은 분석이라는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 분과들로 분화된 (근대의) 자연과학으로 변형된다. 분석과학으로서의 자연과학은 기계론적 결정론과 원자론의 존재론, 환원주의적인 인식론과 실증주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다. 19세기 후반에 분석적인 생리학을 배경으로 실험의학이 등장한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의학교육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시작으로 분석과학인 의과학으로 재편된다. 이로써 미셸 푸코의 『임상의학의 탄생』(2006)이 밝힌 것처럼 실증주의와 분석주의로 무장한 과학적 의학이 의학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과학 덕분에 의료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과학적 의학은 인간학적인 요소를 상실하고 말았다. 임상 주체가 환자라는 인간 대신에 질병체로 바뀌었으며 환자를 기계와 같은 대상으로 보는 생의학 모델에 따라 영상자료와 분석자료만이 의사의 텍스트가 된다. 여기서 질병은 신체기능의 비정상 현상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하이데거에 따르면 과학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할 뿐이다. 철학적 해석은 계산적 사고가 놓친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방법이다. 과학주의적인 생의학 모델을 하이데거의 현상학적-해석학적인 철학적 인간학을 바탕으로 성찰하는 인본의학 모델이 탄생한다. 최 교수의 인본의학 모델은 진교훈의 『의학적 인간학』(2002)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¹⁾ 이런

1) 같은 책에서 진교훈에 의하면 하이데거의 현상학적-해석학을 바탕으로 한 의학적 인간학의 기초는 다음과 같다. 의사는 인간의 삶과 건강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그의 전문적 활동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전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의학적 인간학의 기초에 대한 언명 후에 의술의 이론과 실천에 인격론을 도입하기 위해 저자는 빅토르 폰 바이츠제커의 주체 의학을 거론한다. 환자란 위기에 처해 있는 주체이다. 그에게 인간은 극도로 사회적이고 목적론적 존재이다. 인간학에 의하면 질병은 육체적 결함 그 이

모델에서는 질병을, 비정상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체의 실존적 고통으로 이해한다. 해석은 어떤 현상의 의미를 밝혀내어 이를 이해하려는 인문학적인 방법이다. 성찰하는 해석적 방법에 의해 의학은 좁은 의미로는 의철학이 되며, 넓은 의미에서는 의료인문학과 인문의학이 된다.

최 교수는 토버(A. I. Tauber)의 『면역학적 자아』(The Immune Self)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에 따라 임상의학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해 과학적 훈련과 인간학적 관심을 동시에 공유하는 다면적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개방과 융합의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참신한 기획이다. 마침내 최 교수는 의철학적 탐구의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해 분석과 해석의 결합과 종합에 관한 고찰을 진행한다.

최 교수는 분석과 해석의 결합과 종합이 필요한, 한 가지 사례로 “임상의학 현장에서 의료인문학이 실질적인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없지만, 거꾸로 분석의학만으로는 환자 개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527쪽)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시선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상보성 개념이 요구된다고 한다. 과거에 양자역학의 존재론적 해석을 다룬 자연철학자답게 보어의 상보성 개념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상보성으로 인해 한쪽을 받아들이기 위해 다른 쪽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 인문의학이나 의철학을 추구한다고 해서 의과학을 배제한 채로 대안의학이나 전일의학으로 비약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임상의학이

상의 것으로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환자의 신체기관의 언어는 일상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환자의 병의 의미, 목적과 내용이 밝혀져야만 하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는 단지 결손난 신체기계만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병은 그 병의 성립과 극복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성의 법칙을 증언해주며 인간 현존재가 목적, 목표, 가치, 의미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인간 현존재의 주체 의학에 저자는 인격론을 덧붙이고자 한다. 인격도 주체와 더불어 철학적 인간학의 핵심용어이다. 철학적 인간학과 대화 속에서 의학적 인간학을 통해 저자는 병과 건강, 치유와 생명의 의미를 재정의한다. 철학적 인간학은 유물론적이고 기계론적인 환원론에서 벗어나 인간을 세계개방성의 존재로 보고 의학적 인간학을 근거로 인간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려고 시도한다.

의과학으로 좁혀지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고통에 직면한 환자 개인마다의 실존과 규격화된 임상 현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상보성에 의해 인문학과 임상의학은 각자 신비주의와 과학주의에 빠지지 않고 상호대화의 창을 열어 둘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열린 창이 의철학 플랫폼에서 가능한 것이다. 상보성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점이 이 프로젝트의 매력이다.

“플랫폼으로 의학을 이해한다면 의과학과 철학적 인간학은 서로 충돌되거나 서로에게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의과학이 지나친 결정론적 기계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의료인문학도 자기 위안감과 자기 힐링에 도취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질병과 삶과 건강과 죽음을 이해하는 현상학적·해석학적 플랫폼이다.”(550쪽)

의철학 플랫폼 프로젝트가 실제로 작동할 것인가

의철학 플랫폼은 문과와 이과의 대립, 과학주의와 해석주의의 갈등, 의과학과 의료인문학의 적대를 상보성과 상호작용으로 포용하면서 구체적인 생산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는가? 이 책에서 밝혀낸, 의철학 플랫폼의 생산적 사례는 진화의학에 바탕을 둔 면역의학과 노화의학이다.

진화의학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기인한 감염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진화의학의 진단과 치료의 임상논리는 장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진화론적 인과관계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 직접적 인과관계의 근접원인과 달리 진화론적 인과관계의 궁극원인은 장구한 시간성과 비선형성을 지니므로 비인과성으로 현상한다. 이런 이유로 진화의학이 의학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다. 하지만 진화의학은 질병 메커니즘의 진화 과정에 대한 역사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신체와 질병에 관해 아군과 적군의 이분법이 아닌 다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진화의학은 의료교육과 임상의학에

유용할 수 있다.

진화의학의 관점에서 면역의학을 보면, 자기(自己)와 비(非)자기 혹은 숙주와 기생체의 존재론적 정체성은 불변의 실체로 고정되지 않고, 유연하며 변화하는 특징을 지닌다. 면역 시스템은 적응진화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숙주와 기생체의 관계를 박멸이나 전투로 보는 위생가설은 면역 시스템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진화를 근원으로 한 공존가설이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공존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도 이는 숙주와 기생체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에 일종의 은유에 불과하다. 이처럼 “면역학적 존재는 변화의 철학으로 상징되는 생명진화의 존재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453쪽) 의철학 플랫폼에서 만난 진화의학과 면역의학은 면역학적 생태주의와 공존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대립과 갈등, 모순과 적대의 관계를 생산적인 가치 창조의 대화로 바꾸는 의철학 플랫폼이 앞으로 의학교육과 임상의학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게다가 의철학 플랫폼 프로젝트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의사와 인간 의사의 협력과 대화의 장으로 기능할 것인가?

플랫폼이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철학자 중에서도 유럽철학에 매우 밝으면서도 현대 과학과 의학을 이해하는 극히 일부만이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종사자 중에서도 유럽철학에 관해 입문 수준 이상의 지식은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전문 분과에만 얽매이지 않아 다양한 분과의학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아주 소수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20세기의 의과학에 편중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된 현행 의학교육체계로부터 21세기의 의철학 플랫폼으로의 재편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더불어 철학계도 분석철학과 유럽철학을 골고루 공부하며 의과학과 과학의 실질적인 내용도 공부할 수 있는 융합교육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참고문헌

- 진교훈 (2002), 『의학적 인간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마셜 밴 엘스타인, 상지트 폴 초더리, 제프리 파커 (2020), 『플랫폼 레볼루션』, 이현경 역, 서울: 부키.
- 미셸 푸코 (2006), 『임상의학의 탄생』, 홍성민 역, 서울: 이매진.
- 최중덕 (2020), 『의학의 철학』, 서울: 씨아이알.
- Tauber, A. I. (2010), *The Immune Self*, Cambridge-New York-Melbourne: Cambridge Univ. Press.

서평 투고일	2022. 01. 11
게재 확정일	2022. 03. 04